

# 이렇게 들었다

함께 사는 길

## “우유와 물 섞이듯 화합하라”

지난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 미 국방성 건물에 파괴돼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테러 사태는 온 세계를 경악시켰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번 테러를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전쟁수준의 보복을 천명했다. 하지만 보복은 또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 테러에 무참히 희생된 미국시민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테러범들이 숨어있을지 모르는 나라의 무고한 시민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류는 이제 화합하고 함께 사는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인내(忍耐)의 평화를 낳는다. 스스로 노여워하지 않으면 자신이 평화롭고, 원망하지 않는다면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니, 공존의 길이 그리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부처님의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본다.

석가족과 강을 사이에 두고 코리아족이 있었다. 이 코리아족은 이곳에 정착하면서 석가족과 빈번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하지만 어느 해 혹독한 가뭄으로 두 종족 사이에는 물싸움이 벌어졌다. 코리아족의 대표가 “물을 양쪽에서 끌어 쓰게 되면 둘 다 죽으니 우리가 물을 끌어 쓰겠다”고 하자 석가족은 군사를 일으켰다. 부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두 왕족의 왕에게로 가서 계송을 읊었다. “원한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원한 없이 마음속까지 미워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부처님께 설하자 두 왕은 “부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면 서로 큰 살상을 했을 것이다”며 화해했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형제·부부·가족·인간의 천척 사이에 서로 경애하여 미워하지 않으며, 유무상통(有無相通)하여 싸우는 일이 없으며, 말과 안색이 늘 화평하여 서로 뜻이 어긋나지 말도록 해야 한다.

<무량수경>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범부는 진실을 모르고 때문에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켜, 진실하다니 진실하지 않다니 하는 대립관념에 빠져 있기 일췌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지 않으니, 이것은 바로 현상세계의 실상을 살살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승사유범천소문경>  
부처님께서 코삼비국의 코스타 동산에 계시 때였다. 구심이란 비구는 항상 싸우기를 좋아해서 욕을 하며 칼이나 몽둥이를 잘 휘둘렀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 구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라. 너희들은 한 스승 밑에서 배웠으니 서로 화합하기를 우유와 물이 잘 섞이듯 하라.” 부처님께서는 옛 인연담을 이끌어 말씀하시면서, “남이 잘하는 것도 보지 말고, 잘못하는 것도 보지 말라”고 하셨다. “서로 치고 싸우지도 말고 말로 다투지도 말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겨 모든 생명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항상 칭찬하는 것이로다.”

<중일이함경>  
김주일 기자

# 살생의 共業이 인류공멸 근본원인

## 불자 세상보기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미국 경제력의 상징물인 세계무역센터와 세계 최강군 사력을 상징하는 워싱턴의 펜타곤이 대형 여객기를 폭탄으로 삼은 테러에 의해 파괴된 ‘피의 화요일’ 참사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긴장으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번 테러는 전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테러의 책임자’뿐 아니라 그들을 숨기고 보호해주는 자들까지 색출해 응징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전쟁에 상응하는 ‘피의 보복’과 그 악순환이 예상된다.

둘이켜보건대 미국은 서부개척 과정에서 원주민인 인디언들과의 충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전쟁과 남북전쟁 그

리고 세계 1·2차 대전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등 전쟁을 통해 성장하고 번성한 국가다. 그리하여 전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살생(殺生)의 업(業)에 익숙한 나머지, 자본주의의 최대 결함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전쟁을 합리화하는 ‘아이언 마운틴 보고서’가 월남전을 계기로 유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업은 순치하기 어렵고 관성을 갖기 마련이어서, 미국이 이번 테러에 대해 전쟁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복을 한다는 것은 그간의 살생 업과 악업의 인과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오사마 빈 라덴이 한 손에 코란, 한 손엔

## 악업의 인과 되풀이 세계 평화 위협받아

칼을 외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테러의 뿌리는 이슬람교의 역사에 내재된 살생 업과 인과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폭력성을 제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두 집단-넓게 미국 등 서방측과 이슬람권-간의 이해의 충돌·종교의 충돌 그리고 살생업의 충돌로 세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다른 국가와 민족이 경제적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류는 무명(無明)으로 ‘거짓된 나’에 집착한 나머지



권경술  
새생각실천회 회장  
수필가

인된 종교가 교단 위주로 세속화되면서 종교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외면한 채 종교시장개척을 위해 인류의 살생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한 과오를 이제 직시해야 한다.

미국인이 200여년의 노력 끝에 쌓은 부(富)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순식간에 먼지구름으로 무너져 내린 현실을 목격한 불자(佛子)라면 ‘백년 동안 탐내어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百年食物一朝塵)’을 절감하고 나아가 ‘사할 동안만이라도 수행한 마음은 천년이 되도록 보배가 된다(三日修心千載寶)’는 아연 선사(阿演)의 말씀을 유념해 부처님께서 퍼신 가르침대로 악업을 끊는 수행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 미국 테러 대참사

세계를 경악시킨 미국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테러에 대해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보복조치를 예상하면서도, 보복이 또다른 테러를 부르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 네티즌 반응

그러나 이번 테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네티즌도 일부 있었다. 교계 안팎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네티즌 반응을 종합했다.

○ 테러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테러리스트와 그에 대한 복수로 그만큼의 피값을 요구하는 미국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미국인의 피도 소중하지만 이 순간 아프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들어 있는 어느 아이의 목숨도 소중하다.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 위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될 것이 뻔한 일을 서슴없이 하려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 테러나 전쟁 모두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자는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그 선악의 구별은 무의미할 뿐이다. 차이가 있다면 테러는 덩치가 작은 약자가 주로 선택하는 공격수단이고 전쟁은 덩치가 큰 강자가 즐겨 쓰는 수법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 악은 악을 낳을 뿐이다. 보복 테러는 더 무서운 도덕적 악이다. 악은 결국 악을 낳을 뿐,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 각국은 총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국정부를 도와 이성적인, 인류에 바탕을 둔 해결방안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번 참사는 테러리스트에게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입장

에서는 끔찍한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 테러 이후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고’의 결과만 탓을 하지, 그 원인인 ‘집’과 대인인 ‘멸,도’는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 비행기 테러는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미국의 거만한 외교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로

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랄뿐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냉철함을 갖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무분별한 반미 감정을 우려한다. 명분 없는 테러를 응징하려는 미국의 처사는 마땅하며 오히려 코란을 국민에게 강요하며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구시대적인 중동지도자들을 규탄해야 할 일로 본다.

○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국이 ‘선’이 되고 이슬람이 ‘악’이 되는 이분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응징이 또 다른 중오와 테러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훈

○ 미국이 보복조치를 실행하면 나토도 협력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젠 이슬람교대 기독교 싸움으로 변질지도 모르겠네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두 형제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 미국은 현재 엄청난 테러의 피해자이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어디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미국의 보복 공격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본다.

○ 이번 사건 때문에 미국이 ‘선’이 되고 이슬람이 ‘악’이 되는 이분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무리한 응징이 또 다른 중오와 테러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태훈

○ 미국이 보복조치를 실행하면 나토도 협력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젠 이슬람교대 기독교 싸움으로 변질지도 모르겠네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두 형제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 미국은 현재 엄청난 테러의 피해자이고, 이러한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다면 그게 어디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가. 미국의 보복 공격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본다.

## “테러도 전쟁도 있을수 없는 일” “보복살상 더 무서운 도덕적 악” “아프간 간난아이 목숨도 소중”

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본능만이 존재하는 야수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병구

○ 전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미국의 방식에 유감입니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텐데, 가져온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죽었는데 전쟁으로 또다시 더 많은 목숨이 사라져도 좋겠습니까? 로랑세이

○ 미국의 보복 행위가 선명한 사람

## 기고

### 신행 상담소

사찰마다 설치 포교환경 넓히자



이태수  
임업연구원  
불교연구회 부회장

사찰을 다녀보면, 법당은 개방되어 예불이나 시주하는 데는 자유롭다. 하지만 절의 역사나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데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불교에 대해 묻고 싶어도, 그 사찰의 신도가 되고 싶어도 마땅히 물어볼 사람도, 공간도 없다.

며칠 전 광동 국립수목원에서 버섯 조사와 사진 촬영을 한 일이 있다. 50쯤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접근하더니 “믿음이 있느냐”면서 선교하려 했다. 다른 종교는 성소를 넘어서도 선교를 하려하는데 불교는 찾아오는 사람들로조차 외면하니 안타깝다.

최소한 합당한 세상살이에 자신의 인생을 불교적으로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사찰마다 ‘신행상담소’를 설치해 주기를 전국 주지 스님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신행상담소는 어느 절이나 설치할 수 있고, 운영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님이 어려운 계시는 곳은 물론 한 분만 계시는 곳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매일의 상담이 어렵다면 일주일 단위로 날짜를 정해 상담해도 좋을 듯하다. 혹은 스님들께서 ‘수행하기에도 바쁘는데 어떻게 신행상담까지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찰 청년회나 신도회 등을 활성화시켜 이 모임 가운데 상담자를 임명하여 1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른 종교의 경우를 보자. 권사, 집사, 장로 등 여러 계층의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하고 있는가. 사찰 참배객에게 향시 문호를 열어 언제 누구에게나 불교를 믿도록 가르쳐 주는 신행상담소 설치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접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순신식(2개월 50만원), 순효소정액(2개월 50만원)
-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 구중구로(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원장

###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복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통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힘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나 세시미늄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체내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난가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시초 한류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 제조 의 료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함장

☎(053) 628-9145, 655-2227 (011) 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 254-2600 (011) 545-5500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순신식(松仙食)」, 「순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